

세월호 소식나눔

People in Solidarity with Families of Sewol Ferry

필라 세사모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필라델피아 사람들의 모임(필라 세사모)은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필라 지역 동포들의 모임입니다. 후원과 참여, 소식지 광고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주십시오.

- 이메일: philasewol@gmail.com
- 전화: 267-475-7132, 814-777-4379
- Paypal: philasewol@gmail.com
- www.facebook.com/philasesamo

10월의 주요 활동

10월 29일(토) 저녁 8시
416기억저장소 후원음악회 <국악과 어우러진 콜라보 한마당> 개최,
팬아시아노인복지원(PASSI)

소식지와 기억물품을 계속 나눕니다.

10월 6일(목)~8일(토) <솔트소울>
공연장, 아시안 아츠 이니셔티브(AAI)

10월 8일(토)~9일(일) <귀향> 필라델피아 상영회, 유펜 휴스턴홀 및 갈보리비전센터(CVC)

- 10월 23일(일) 챗햄 H마트**
- 10월 23일(일) 노스웨일즈 아씨마트**
- 10월 28일(금) 어퍼다비 H마트**
- 10월 30일(일) 체리힐 H마트**



사람의 길을 걸어야!

“한 번 태어나는 것이거나, 두 번 태어나는 것이거나,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을 해치고 동정심이 없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아라.”

초기 불교경전인 ‘숫타이파타’에서 일컫는 ‘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안타깝게도 이 ‘천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지난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끝내 숨진 백남기 농민의 주검과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백남기 농민이 왜, 그 날 그 자리에 서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침묵합니다. 또한 경찰이 쏜 물대포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다는 명백한 영상기록과 의료기록들을 애써 외면합니다. 경찰의 과잉진압 책임도 일절 거론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사망의 책임을 유족들에게 돌리며 유족들을 모욕하고 헐뜯습니다. 심각한 윤리 실종이자 야만적 행태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만도 힘겨울 유족에 대한 연민과 배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둘러싼 이런 비상식적 ‘유족 혐오’ 행태, 세월호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유족충’, ‘시체팔이’ 등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로 매도하고,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양념치킨 퍼포먼스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유족들이 “가족을 모욕하는 일을 그만 뒤 달라. 부디 ‘사람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을까요? 여러분, 생명을 해치거나 동정심이 없는 ‘천한’ 길이 아닌 ‘사람의 길’, 지금 견고 계신지요?

세월호 유가족 “백남기 어르신, 가족 심정으로 함께할 것”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아서 304명을 죽인 일이고, 백남기 어르신에 대한 행위는 국가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위독한 상태로 생사를 넘나들 당시, 서울 대학교 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 예은아빠 유경근씨 등 세월호 유가족도 함께 참석했다. 유경근씨는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어르신에 대한 경찰의 행위는 다르지 않다”면서 “두 사건 모두 이 국가가 범법행위에 의해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다르지 않다. 내 가족이라는 심정으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조위 “2기 특조위 향해 나아가겠다”

10월 5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7월 27일부터 71일간 계속 이어지던 릴레이 단식을 종료하고 단식장을 사진 철거했다. 특조위원들의 단식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었으나, 정부는 9월 30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종료했다.

단식장 철거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특조위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특조위는 2기 특조위가 구성돼 활동할 수 있도록 세월호 특별법의 제/개정 활동에 힘을 쏟고, 이달 안에 국회 상임위에 법안이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유가족과 시민사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 특조위’, ‘국민 조사단’이 출범할 경우 연대 활동을 벌이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석태 위원장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새로운 의미의 특조위로 국민과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향해 더 끈기있게 걸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필라 세사모가 만난 사람(5) ‘마음을 담은 소리’로 세상을 울리는 전통악기 연주자 가민



“뉴욕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 중 세월호 사건을 접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혼자 지내던 제게 심리적으로 큰 충격이었는데, 세월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물이 범람해 내 가족을 잃어버리는 꿈까지 꿴 정도였죠.”

늘 새로운 음악을 무대에 올리며 관객들에게 단순한 음악 이상의 것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통악기 연주자 가민씨에게 세월호 사건은 그렇게 다가왔다. 무형문화제 제46호 이수자인 가민은 피리, 생황, 태평소 연주자로 활동하며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차세대 전통악기 연주자이다. 2014년 록펠러재단의 아시아문화교류 프로그램 기금 등 국내외 다양한 예술인 지원프로그램에 선정되어, 독자적인 예술영역을 개척해 가며 해외에 한국악기를 알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추모공원 분향소 방문, 한없이 울다 나와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 ‘즉흥춤 워크숍’에서 무용수와 음악가들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 때 김정웅 안무가를 처음 만났어요.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다 제 뉴욕공연에서 다시 만나 예술적 공감을 나누었고 공동작업에 대한 제안을 받았어요.”

김정웅 안무가는 2014년 10월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전미 아시안 아메리칸 공연예술제(Asian American Theater Festival)에서 세월호 참사 직후의 충격을 담은 <전복>(Capsized)을 올렸다. 2015년부터 퓨센터(The Pew Center for Arts and Heritage)의 창작지원기금을 받아 세월호를 비롯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상실로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한 공연 <솔트소울>을 준비하며 두 사람은 다시 서울에서 만나게 된다.

“김정웅씨와 함께 유가족도 만나고 기억저장소, 추모공원도 방문했습니다. 2015년 가을이었는데 분향소에 들어섰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큰 공간 속에서 수백명의 희생자 사진을 바라보는데, 압도당하는 느낌과 함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없이 울다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문제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술가로서 음악가로서 공연에만 매달렸던 그에게 세월호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된 사건이었다. 2016년 1월 필라로 돌아온 가민은 2월 6일 센터시티에 위치한 아시안 아트 이니셔티브(Asian Arts Initiative, AAI)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한미예술가들의 합동공연 <기억>에 참여했고, 7월에는 센터시티 구세군 건물 붕괴사고 현장과 시청 옆 분수광장에서 두 차례의 ‘팝업쇼’를 가졌다. 그리고 지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오랜 공동작업 끝에 <솔트소울>을 AAI에 올렸다.

세월호 침몰원인 밝혀 증거 '스테빌라이저' 절단, "연내 인양 불가"

지난 9월 2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스테빌라이저 절단 사실을 인정했다. 스테빌라이저는 세월호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진상규명 증거로, 특조위는 해수부에 절단 방침을 물릴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선체 좌현에 인양을 위한 리프팅빔을 설치하기 위해 스테빌라이저 절단을 강행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위상곤 의원은 국감에서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내 인양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며, "지금까지 수차례 세월호 선체의 인양시점이 연기돼 온 것은 정부 책임이 큰 만큼,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강한 조류와 견고한 퇴적층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리프팅빔을 설치하는 다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416기억저장소: 다시는 이런 슬픔 없도록 '기억'하고 '기록'

416기억저장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모든 기록을 수집하고 분류해서 보관, 전시하는, 4.16가족협의회 소속의 조직이다. 참사 직후 안산시 시민기록위원회,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네트워크, 서울시 추모기록 자원봉사단의 활동을 모아 시작된 것으로, 2014년 아름다운재단, 한겨레 21과의 공동캠페인 <기억0416>을 통해 공간과 시스템을 마련했다. 100% 시민 후원으로 운영되며, 416기억저장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이 되어 후원에 참여할 수 있다.

416기억저장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도연엄마 이지성씨는 뉴스앤조와의 인터뷰를 통해 "엄마 아빠들은 너희들을 지키지 못했지만,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슬픔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세월호) 기록들을 통해서 끝까지 기억하고 결국 대한민국이 생명의 존엄성이 인정되는 나라,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필라 세사모가 만난 사람(5)_ 전통악기 연주자 가민

(2면에 이어)

김정웅 안무가와 함께 세월호 아픔 다룬 <솔트소울> 공연

"2015년 10월에 서울에서 만나 시작했으니 만 1년에 걸쳐 준비하고 공연을 한 셈이네요. 보통의 공연은 사전준비, 리허설, 공연으로 심플하게 이어지면 되지만, 이번 공연은 이면에 많은 과정이 필요했고, 그 과정들을 통해 제 개인적으로 공연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가로서 음악 자체에 몰두해서 공연하는 때도 많지만, 이번 공연을 위해 음악 이외의 많은 주제를 함께 고민하며 연주자로서의 지평을 넓히는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저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 예술가로서 사회 구성원들의 같은 아픔을 대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알고 노력했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악 전파 위해 전세계 예술가들과 협업

연주자 가민은 늘 다양한 협업과 실험적 시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예술가로서의 호기심, 창작 욕구를 가지고 현시대 사람으로서 전통악기를 어떻게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늘 고민하고 이슈화 하는 것이다.

"관객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하는데 때로는 벽 같은 것을 절감하거든요. 그래서 상업적인 측면을 떠나 대중들과 공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늘 다른 점점들을 찾고 그것을 매개로 세상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관객들과 함께 나누려는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해요."

가민씨는 역사적인 이유로 국악이 소외되거나 천대받았던 때가 있었고, 많이 소실되기도 했다고 말한다. 국악은 고루하고 하찮은 것, 몰라도 되는 것이라는 편견도 문제다. 그것 역시 한국사회의 아픔이라 생각한다는 그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많이 노력하려고 했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국악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국립국악원을 그만두고 전 세계를 순회하며 다양한 연주가들과 교류하는 것도 그 이유다.

"미국이나 다른 유럽인들의 경우 편견이 없어 국악에 대해 더 궁금해 하고, 감동 받고, 존경해 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사도 모르고 음계도 모르지만 감동받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것이 문화와 음악의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한국음악을 하니 사명감도 더욱 배가되는 것 같다는 가민씨. 그는 필라 동포사회도 한국전통음악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이들이 많은 것을 보고 감명 받았으며 특별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의 '세월호 공연'에서 '마음을 담은 소리'가 느껴지는 이유다.

'이 시대의 서정적 매혹의 마술피리' 가민과 함께 하는
국악과 어우러진 콜라보 한마당



티켓: \$10

협연:
 동남풍 - 사물놀이
 이상창 - 플루트
 김성규 - 클라리넷
 구현미 - 피아노
 들 불 - 노래

- 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박사
-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부수석 역임
- Asian Culture Council 아시아문화예술 연구원 선정 2013
- 유럽, 미국, 아시아 등 10여개 국가에서 초청 연주

펜아시아노인복지원 (PASSi)
 6926 Old York Rd,
 Philadelphia, PA 19126

2016년 10월 29일 (토) 저녁 8시

주관: 세월호를 기억하는 필라델피아 사람들의 모임 (필라 세사모)
 문의: philasewol@gmail.com / 267-475-7132

** 본 행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해 운영하는 416기억저장소 후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익금은 전액 416기억저장소에 보내집니다.

416기억저장소는 2014년 4월 16일 이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활동한 안산시 시민기록위원회,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네트워크, 서울시 추모기록 자원봉사단이 활동을 모아 시작된 4.16가족협의회 소속의 조직입니다. 2014년 아름다운재단, 한겨레 21과의 공동캠페인 <기억0416>을 통해 공간과 시스템을 마련하고 다양한 영역으로부터 자발적인 도움을 받아 지금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민과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우리 사회가 세월호 사고에 대한 기억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기억과 기록을 수집하고 정리하며 공유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